

섹시하게... 감쪽하게... 우아하게...

연아 오늘도 세계를 감동시킨다

오후 1시 21분부터 프리 '금빛연기'... 광민정은 오전 11시 41분

드디어 '피겨여신' 김연아의 날이 밝았다. 지난 24일 쇼트프로그램에서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78.50점)을 경신하며 선두로 나선 김연아(20·고려대)가 26일(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한국인 최초의 피겨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연아는 26일 오후 1시21분부터 4조 세 번째 연기자로 나서고, 이에 앞서 광민정(수리고)은 오전 11시41분에 2조 여섯 번째로 연기를 펼친다. 또 금메달 경쟁에 뛰어들어 아사다(20·일본)는 김연아의 연기에 이어 네번째 연기자로 나선다.

'틀린 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찬 김연아는 25일 공식 훈련을 갖고 마지막 컨디션 조율을 마쳤다. 무엇보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심판들로부터 최고의 수행점수(GOE)를 끌어내면서 아사다와 점수 차를 벌였고, 이런 자신감을 프리스케이팅 연기까지 이어가 금메달을 목에 걸 태세이다.

▷높은 기산점 '금빛 지름길' = 김연아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실전 훈련에 집중해왔다. 하루 두 차례씩 3시간 동안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반복 훈련해온 김연아는 마침내 실수 없는 '틀린 프로그램'의 경지에 접어들었고, 금메달의 첫 관문인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선두에 나설 수 있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화려한 수행점수(GOE) 퍼레이드'만 보더라도 심판들 역시 김연아의 실력을 인정하는 만큼 프리스

케이팅 역시 7개 점프과제에서 최상의 GOE만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자신이 세운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인 210.03점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쇼트 최고점 '부담감 탈출' = 김연아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5차 대회에서도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을 세웠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총 7개의 점프 과제 가운데 3개의 점프(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러츠)에서 GOE가 감점으로 바뀌고,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6.3점)의 GOE는 '0'였다. 부담감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김연아는 "점수에 대한 부담과 체력저하로 긴장이 많이 됐다"라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분석했다.

올림픽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값진 경험을 했던 김연아는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르고 동계올림픽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상황은 엇비슷해도 김연아의 마음가짐은 달라졌다. 김연아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라며 "금메달을 꿈꿔왔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올림픽도 다른 국제대회와 다를 게 없다"라며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감심장'에 '느긋함'까지 겸비한 김연아의 금메달이 뚜렷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프리스케이팅은

4분 10초내 12가지 연기 점프 7개 이상 하면 안돼

'피겨퀸' 김연아가 24일(이하 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에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1위로 올라섰다.

경쟁자 아사다 마오(20·일본)를 4.72점 차로 제치며 1위에 올랐지만, 아직 금메달을 딴 것은 아니다. 김연아는 26일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한 번 더 치러 합산 점수에서 아사다를 눌러야 '올림픽 퀸'으로 올라설 수 있다.

피겨스케이팅 중 아이스댄스를 제외한 남녀 싱글, 페어스케이팅은 모두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한 차례씩 거쳐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가른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이름에서 눈에 띄듯 두 프로그램은 우선 연기 시간이 다르다. 현재 여자 싱글 종목은 쇼트프로그램이 2분50초(±10초)로 제한되고, 프리스케이팅은 4분(±10초) 동안 연기를 한다.

규정된 연기 시간을 벗어나면 바로 감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연기해야 한다.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선수는 점프 3개와 스핀 3개, 스텝 1개, 스파이럴 1개 등 8개 과제를 연기해야 한다.

점프에도 제약이 크다. 트리플-트리플(3회전-3회전)이나 더블-트리플(2회전-3회전) 콤비네이션 점프를 반드시 1번 해야 하며, 더블 악셀(2회전반) 점프도 꼭 넣어야 한다. 프리스케이팅은 쇼트프로그램보다 제약이 덜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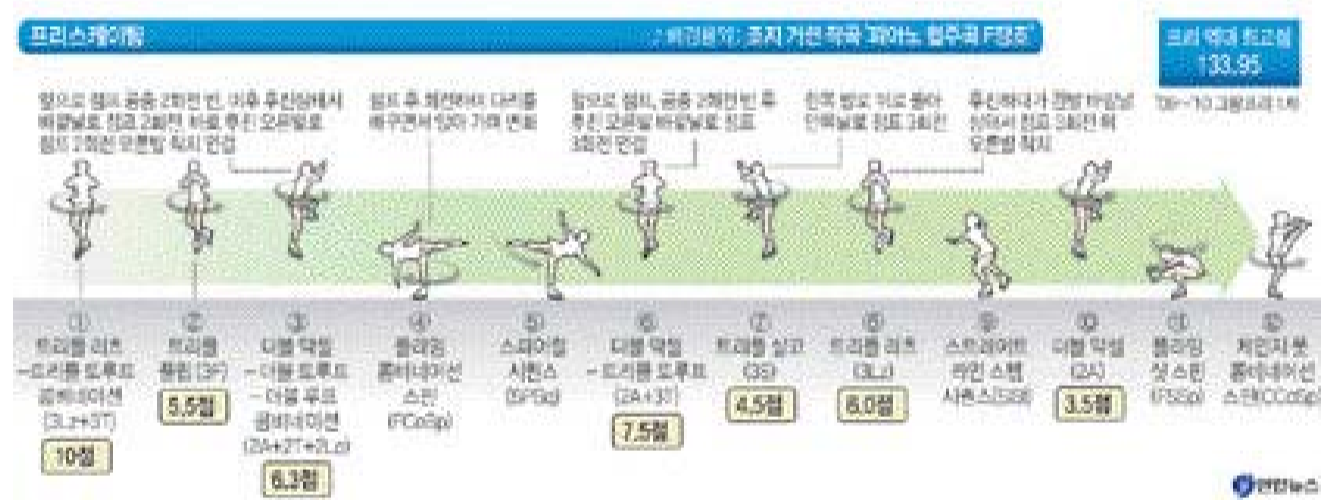
다만 실력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12개 연기요소 중 점프 요소를 7개 이상 할 수 없다. 또 스핀 3개, 스텝 1개, 스파이럴 1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은 정해두고 있다.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범위에서 선수들은 훨씬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번 시즌 김연아와 아사다는 똑같이 프리스케이팅에서 7번의 점프 요소를 연기하지만 더블 악셀 하나를 제외하면 똑같은 연기는 한 번도 없다.

/연필뉴스

■ 피겨여신 김연아 연기 순서



女 쇼트트랙 3000계주 금 빼앗겼다

1위 골인했는데... 심판진 비디오 판독후 실격 선언 "레이스 도중 中 선수 고의로 밀쳤다" 황당한 판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에서 1위로 골인하고도 실격을 당해 금메달을 놓쳤다.

조해리(고양시청)-김민정(전북도청)-이은별(연수여고)-박승희(광문고)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플레이세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천m 계주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 뒤 심판진은 레이스 도중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를 밀쳤다고 판정해 실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4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계주 4연패를 이룩했던 여자 쇼트트랙이 금메달 명맥이 끊겼다. 너무나 아쉬운 레이스였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은 개인전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훈련시간의 상당 부분을 계주 훈련에 투자했다.

오랜 기간 훈련한 만큼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았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았다.

111.12m의 트랙을 27바퀴 도는 3천m 계주에서 중국·캐나다·미국과 함께 나선 한국은 3위로 출발했지만 3바퀴째

이은별이 2위로 치고 나갔고 17바퀴를 남기고는 다시 이은별이 중국을 따돌리고 1위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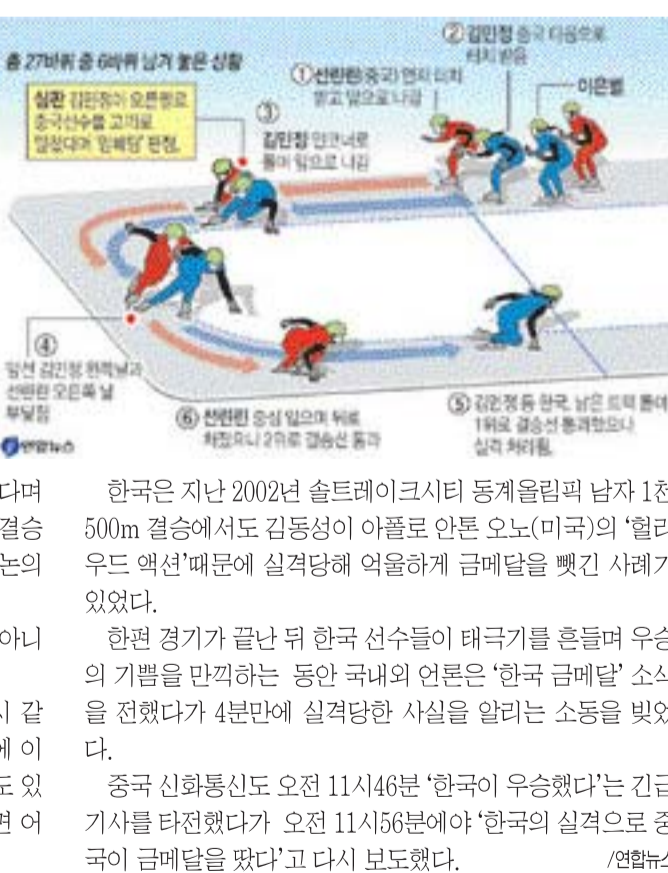
12바퀴째 남기고는 이은별이 중국에 선두를 허용했다 이내 되찾는 등 치열한 2파전이 전개됐다. 문제는 6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벌어졌다.

터치를 받은 김민정 선두로 코너를 돌다 오른쪽 팔이 바짝 휘마오오던 중국 선린린과 부딪힌 것.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 부딪혔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심판들은 경기 뒤 김민정이 고의로 밀쳤다고 '임페딩(impeding)'으로 판정했다. 결국 한국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태극기를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이후 논란을 계속하던 심판진은 최종적으로 실격을 선언했다.

실망한 대표선수들은 전부 눈물을 흘리며 "실격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여자대표팀 최광복 코치는 "주심이 김동성 사건 당시 같은 인물이라 선수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경기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설명한 뒤 "(반칙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판정이 나고 나면 어필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 쇼트트랙 여자 3000계주 결승 상황도



8년전에는 '김동성 오심' 휴이시 한국과 질긴 악연

■ '술 박탈' 주심 알고보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에 악몽을 안긴 주심은 공교롭게도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의 금메달을 빼앗아 갔던 바로 그 심판이다.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남자 쇼트트랙 1천500m에서 김동성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 주심이던 휴이시는 양손을 번쩍 들면서 김동성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의 '할리우드 액션'에 손을 들어줬다.

휴이시의 명백한 오심으로 김동성은 다 찢던 금메달을 오노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휴이시는 이번 밴쿠버 대회 여자 쇼트트랙 3천m 계주 결승에서 또 한 번 한국에 뼈아픈 판정을 내렸다.

조해리(고양시청)-김민정(전북도청)-이은별(연수여고)-박승희(광문고)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김민정이 코너를 돌다 고의로 중국 선수를 밀쳤다고 '임페딩(impeding)'으로 판정해 실격을 줬다.

판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심인 그는 자연스런 주행 동작에서 부딪힌 것인지 고의적인 반칙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 것이다.

대표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칙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전이경 SBS해설위원은 "휴이시가 김동성 오심 사건 이후로 2년 동안 대회에 못 나오다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휴이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휴이시는 복귀 이후에도 2006년 4월 미국에서 열린 200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안현수를 실격처리한 전력이 있다.

/연필뉴스